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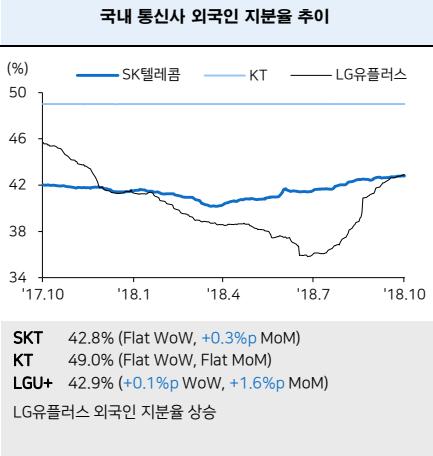
2018.10.15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5.0	-6.7	-6.4	-11.9	8.7	8.7	0.9	0.9	2.2	2.2	
통신업종	-3.7	-2.6	10.4	19.3	8.2	8.2	0.9	0.9	3.5	3.5	
SK텔레콤	-3.4	-2.5	12.3	20.5	6.9	7.1	1.0	0.9	3.8	3.8	
KT	-3.4	-1.2	4.0	7.9	10.5	10.3	0.6	0.6	3.7	3.9	
LG유플러스	-3.7	-1.2	15.1	41.2	13.1	12.1	1.2	1.1	2.6	2.8	
AT&T	-5.1	-4.0	1.8	-8.2	9.2	8.9	1.3	1.3	6.2	6.3	
Verizon	-2.2	-1.5	4.5	12.7	11.6	11.4	4.1	3.4	4.4	4.6	
T-Mobile	-0.3	0.2	10.9	10.4	21.0	17.1	2.3	2.1	0.0	0.0	
Sprint	-0.5	0.9	13.3	10.9	33.0	N/A	1.0	0.9	0.0	0.0	
NTT Docomo	-2.6	-1.6	3.1	6.5	14.9	14.8	1.8	1.8	3.4	3.8	
KDDI	-1.6	-3.7	-6.7	5.7	12.5	11.3	1.9	1.7	3.1	3.4	
Softbank	-10.9	-8.9	2.6	24.3	10.0	13.8	2.1	1.8	0.4	0.4	
China Mobile	0.6	1.4	13.0	5.8	12.2	12.1	1.4	1.3	4.0	4.1	
China Unicom	-2.5	-7.1	-6.5	-14.6	28.4	17.7	0.7	0.7	1.3	2.2	
China Telecom	0.3	3.9	11.2	10.0	14.0	13.0	0.8	0.8	2.9	3.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0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3%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미국 금리 인상 및 증시 하락 여파로 방어주인 통신주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 섹터 부진 지난 10일 과방위 국정감사는 특별한 규제 이슈의 부각 없이 무난히 넘어간 상황 국내 기관은 KT, SK텔레콤 순매수, LG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은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가오는 3Q18 실적으로 이동 시장 경쟁이 소폭 강화되며 통신 3사 모두 지난 상반기 대비 다소 부진한 3Q18 실적 예상 SK텔레콤은 11번가 분사, ADT캡스 펀딩 등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 전망 한편, 향후 과방위 국정감사 일정 중에서는 26일 실시되는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에 주목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	8	9	10 과방위 국정감사 시작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주간 뉴스

▶ 통신비 인하 방안, 완전자급제만 다시 거론

(ZDNet Korea)

-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올해도 재차 논의
- 유영민 장관은 통신 유통업 종사자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
- 경쟁정책의 강화나 보편요금제 등은 과기정통부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상황
- ⇒ 신규 요금제로 인해 보편요금제에 대한 당위성 하락.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 한편, 유통협회 등 유통 업계 종사들은 완전자급제에 집착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 이효성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

(ZDNet Korea)

-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국감 이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
- 지상파 방송사들의 제작 여력을 줄어들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 방송광고 편중을 이유로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 중
- ⇒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12월까지 방송광고 전면에 대해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 ⇒ 지상파가 이미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했지만 수익성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이통3사, 5G 투자에 5년 7조5000억원 '파소투자'... 정부 진통 필요

(전자신문)

- 이통3사가 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에 5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
- 송희경 의원은 보편요금제, 저소득층 요금 감면 등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비판
- 이에 더불어 투자 유인책으로 2022년까지 필요세액 공제율을 5% 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안 제시
- ⇒ 이에 유영민 장관은 R&D 연계 5G 통신의 세제 혜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
- ⇒ 정부의 5G 투자에 대한 의지와 외국 사례 고려 시, 세제혜택에 대한 당위성은 높다고 판단

▶ 1.7조원 규모 재난망 사업자 다음주에 결정

(ZDNet Korea)

- 재난망 관련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이르면 오는 17일 사업자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보고받을 계획
- 사업 규모는 1조7천억원. 이번 발주 규모는 약 9천억원(망 구축비용, 회선 관련 용역 비용 포함)
- SK텔레콤은 많은 기지국 수, KT는 재난망 시범사업 경험, LG U+는 LTE-R 사업 경험이 강점
- ⇒ 우선협상대상자가 본사업을 맡을 가능성 높아. 본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20일 이후
- ⇒ 본 사업은 세 구역으로 분할 발주하고 있어, 세 사업자가 나눠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SKT, '10조' 보안 맹주될까... 삼성과의 전면전 예고

(마니투데이)

- SK텔레콤은 ADT캡스를 인수한데 이어 정보보안 사업 전문 SK인포섹 지분 인수도 추진 중
- SK텔레콤이 SK인포섹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SK에 양도하는 방식의 거래가 협력
- SK인포섹의 지난해 매출 2,127억원으로, 인수 시 물리보안과 정보보안 사이의 시너지 창출
- ⇒ 일각에서는 SK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시선. 회사 측에서는 부정
- ⇒ 인수 성사 시 SK텔레콤의 보안 사업 매출액은 1조 이상으로, 종합 보안회사로 거듭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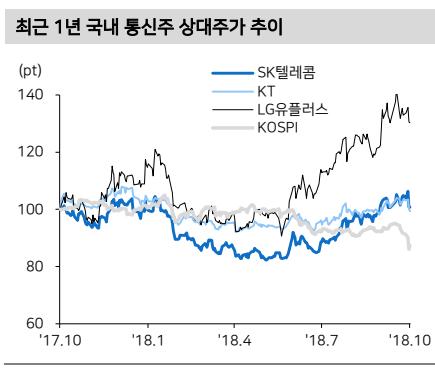
▶ SK브로드밴드 '옥수수, 실감형 스포츠 중계로 차별화'

(전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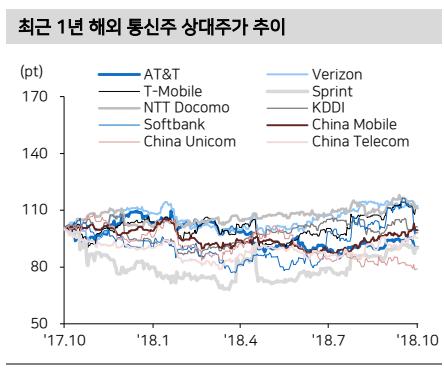
-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를 통해 4D 리플레이와 VR 중계 등 실감형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
-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KBL SKT 5GX 프로농구, 2018 KBO 포스트시즌 중계를 포함
- 김종원 모바일사업본부장은 차별화된 스포츠 중계는 옥수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
- ⇒ 5G 시대에 대비하여 스포츠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해석
- ⇒ 스포츠 콘텐츠 확대에 더불어 자체 콘텐츠 투자 증대 등으로 옥수수 기업 성장 지속 전망

(집약달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70,000	19.2	14.9	15.2	1.2	1.2	2.7	2.6	4.0	4.1	5.8	5.7	16.2	13.5
	KT	28,800	6.6	20.6	20.9	1.2	1.2	0.6	0.6	4.2	4.2	2.6	2.5	5.9	5.7
	LG유플러스	16,800	6.5	10.8	11.0	0.7	0.8	0.5	0.5	2.2	2.3	3.9	3.7	9.9	9.7
미국	AT&T	32.3	234.2	173.3	186.0	32.1	36.4	23.8	26.4	56.2	60.8	7.3	6.8	14.1	14.8
	Verizon	53.7	222.0	130.7	132.0	29.4	31.1	19.0	20.0	47.4	48.7	7.1	6.9	38.8	33.5
	T-Mobile	68.4	57.9	43.0	45.3	5.3	5.9	2.7	3.3	11.9	12.9	7.4	6.9	11.8	12.8
	Sprint	6.4	26.1	32.4	32.8	2.6	2.4	5.5	-0.0	11.1	12.3	5.3	4.7	14.1	0.3
일본	NTT Docomo	2,912	98.3	44.2	43.1	9.1	9.0	6.7	6.3	13.9	13.6	7.3	7.0	12.6	12.2
	KDDI	2,932	66.3	45.8	46.1	9.0	9.2	5.3	5.5	14.1	14.2	5.7	5.5	15.6	15.8
	Softbank	9,976	98.0	83.8	84.0	11.6	12.2	9.9	6.7	25.0	24.9	9.9	9.6	22.0	12.8
중국	China Mobile	78.0	203.8	109.2	112.0	17.8	17.7	16.8	17.0	40.4	41.6	3.4	3.3	11.4	10.9
	China Unicom	8.8	34.5	41.5	43.6	1.4	2.4	1.2	2.0	12.7	13.6	2.8	2.6	2.5	4.1
	China Telecom	4.0	40.9	55.3	57.4	4.2	4.5	2.9	3.2	15.3	15.9	3.3	3.2	6.1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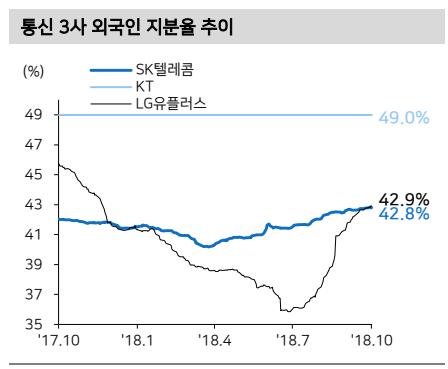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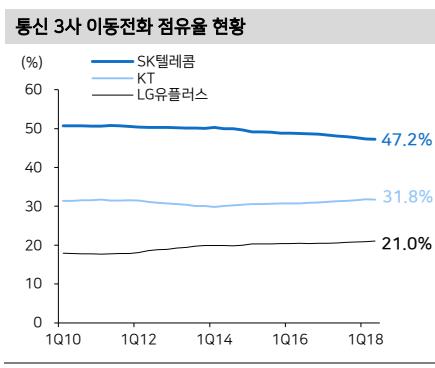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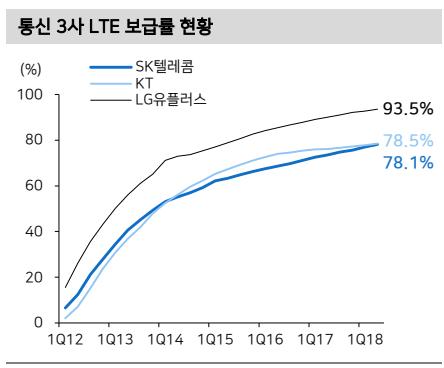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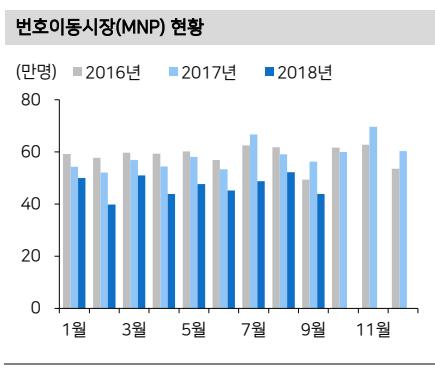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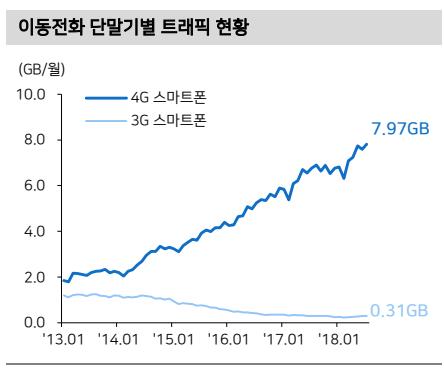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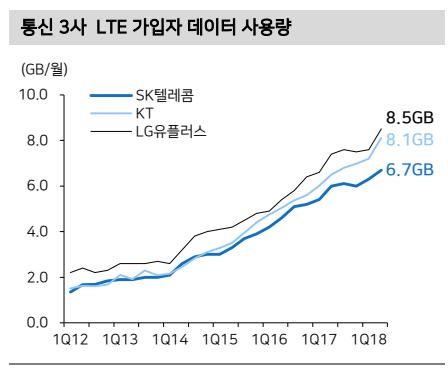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A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